

임신돈 (妊娠豚)의 사양



곽·종·형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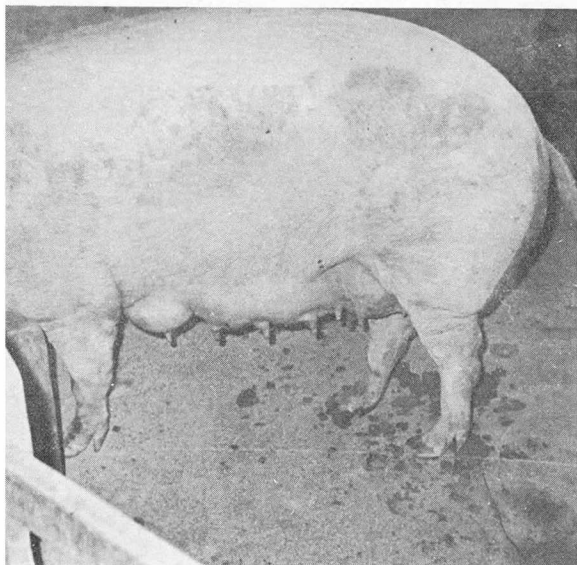
“
임신말기에 동계의 경우는
신생자돈을 수용하기 위한
난방시설을 강구하여 돈방
전체가 보온이 되도록 하며,
특히, 셋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신돈의 사양은 모체(母體)의 건강 및 태어난
자돈의 건강과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모
돈의 개체(個體)나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보살피
주는 합리적인 사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돈은 임신중에 있어서 분만(分娩)후 자돈에
게 수유(授乳)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태아(胎兒)의 발육에 필요로 하는 영양분보다
도 모체 자신에 저장되는 영양분의 양(量)이 더
많다.

임신중 모돈의 체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 임신전의 체중이 100~150kg일
때 그 자궁의 중량은 207~245g이고, 수태(受胎)
에 의하여 태아가 5~12두 회임(懷妊)하고 있다.
태아의 무게가 분만이 가까워 지면 1.5kg로 되어
모체의 체중이 100분의 1에 가깝게 되며 자궁의
중량과 합하면 4.5kg로 된다.



증가하는데, 산차가 경과함에 따라 점감하고 있다.

1. 임신초기의 사양

임신초기의 사양에 있어서 모돈에 수태가 확인되면 점차 영양을 증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급여하는 사료는 수종의 것을 배합하도록 하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10% 정도 첨가하여 편식이나 단미사료에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체가 220kg 내외의 모돈일때는 가소화 조단백질이 270g 정도, 가소화 순단백질로 해서 250g을 일량(日量)으로 해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청초, 칼슘분의 보급도 중요하다. 임신중 사료칼슘의 대사상황은 단백질과 달리 칼슘은 임신의 후반보다 전기에 있어서 많으며, 돼지의 체내에 축적이 된다.

태아 1두분의 칼슘 함량은 뼈에 11.4~18.5g, 근육혈액중에는 0.5g로 일복(一腹) 10두라면 전체로 최소한도 119g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칼슘은 탄산칼슘으로 해서 급여 건물사료의 2.5~3.0% 내외는 반드시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표1>은 임신전과 임신중의 모돈에 대한 영양급여량으로서 사료 1kg당에 대한 %와 단위이다.

<표1> 임신전·임신중의 모돈에 대한 영양 급여량

영 양 성 분	사료 1kg당의 % 또는 단위
단 백 질 (%)	14~15
칼 슈 (%)	0.70
인 (%)	0.55
염 (%)	0.50
비타민A (IU)	5.555
비타민D (IU)	666
리보플라민 (mg)	5.7
판토텐산 (mg)	17.7
나이아신 (mg)	33.3
비타민B ₁₂ (mcg)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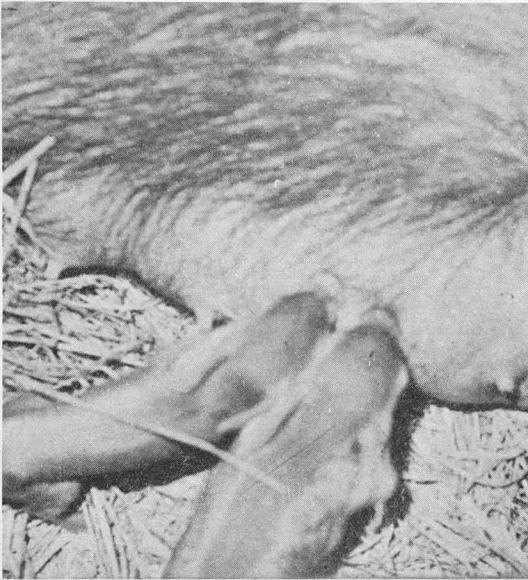
태아의 중량이 증대하여 모체의 100~200분의 1에 달하면 임신말기로 자궁의 중량은 태아의 배량(倍量)정도 된다. 물론 모돈의 발육이 왕성하게 되지 않고 또한 발육중의 것은 별도이다.

태아의 경우 수분이 8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반하여 모체의 수분은 50% 이하로 지방이 많으며, 체중의 3분의 1 이상이나 태아에는 지방이 거의 없으며, 수분과 뼈로 구성되어 있다. 태아의 발육은 처음 서서히 진행하나 경과함에 따라 왕성하게 된다.

자돈의 생시체중의 65%는 분만전 1개월내에 증가되어진 것이다. 자돈의 발육은 무엇보다도 자궁이 증량된 것으로 모체 자체의 체중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임신중에 어느정도 모체의 체중이 증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서는 그 모체의 연령·교배시의 살붙임 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적어도 분만 및 수유에 의하여 잃게 되는 체중은 임신중에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부로부터 분만일까지의 체중증가는 랜드레이스종의 경우 초산은 48.7%, 2~3 산은 36.6%



2. 임신말기의 사양

모든의 수태에 의한 체중증가에 대해서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배시 체중 100에 대하여 분만전의 체중증가 %는 평균 136%로 이 증가율은 개체나 태아의 두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교배의 체중에 의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태에 의한 모든의 체중 증가율을 보면 <표 2>와 같다.

대체적으로 초산인 것은 교배시의 30~40% 증가하고, 성숙한 성돈은 20~30% 증가하며, 건물량으로 3.5~4.5kg 정도의 배합사료를 급여하면 된다. 임신중에 있어서 매일의 단백질적량은 임신의 전반기로부터 후반기에 많으며, 말기에는

1일 33g이다. 전임신기간을 평균하면 1일 16g이라고 한다.

체중유지의 필요 단백질의 16%만 증량시켜야 한다. 그래서 가소화영양분은 2배가량인 32g이고, 백분율로 32%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신중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원으로서 소화하기 쉬운 양질의 전분질을 주어야 하며, 말기에는 전분가로서 약 30% 정도 증량할 필요가 있다.

무기성분으로는 칼슘과 인의 보급이 중요하다.

비타민으로는 특히 A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발정과 수태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수태된 태아도 발육이 불량해지며 야맹증도 일으킨다.

비타민 A의 필요량은 1.2~1.5만 단위로 생초류에 많으며, 대체로 100g중 5,000단위로 1일 300~400g정도 급여하면 된다.

분만전 3주간쯤의 급여사료는 대체로 수유모돈에 주는 배합사료로 교체하여 분만후의 식욕 및 기호에 급변하지 않도록 순화케 한다. 분만전 2~3일전부터 식욕에도 관계가 되지만 사료의 급여량을 감량한다. 사료는 소화가 잘 되며 물을 가하여 스프상으로 해서 주고 장내에 체분(滯糞)이 없도록 하여 분만을 편하게 해야 한다. 또한, 임신돈에 심한 운동을 피하며, 돈방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여름인 경우 통풍 등으로 서늘하게 하고, 건조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급여사료가 남지 않도록 사조를 깨끗하게 할 한다. 동계의 경우 신생자돈을 수용하기 위한 난방시설을 강구하여 돈방 전체가 보온이 되도록 하며, 특히 셋바람(賊風)이 들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黃粉

<표 2> 수태에 의한 모든의 체중 증가율

경 과	교 배 시	수태후 1개월	수태후 2개월	수태후 3개월	수태후 4개월
체 중(kg)	146.3	163.7	175.5	187.8	199.0
증 가 율(%)	100	112	121	128	136